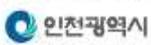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일(목) 총 5매	
담당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 일자리경제기획팀장 나중혁 ☎440-3261 • 담당자 박혜란 ☎440-326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총력

- 2021년 인천시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

- 4대 분야, 13개 추진전략, 65개 실천과제로 구성, 134,706명 일자리 창출 목표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3개 추진전략, 65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4,706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인천시의 고용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산저하,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하락하는 등 전년대비 악화되었다.

다만, 수차례의 긴급 민생경제 대책 추진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은 61.3%로 특·광역시 2위를 계속 유지하는 등 비교적 선방해 왔으며,

2021년 2월 고용률은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상황 개선으로 60%대를

회복하고 실업률도 4.9%로 전월대비 1.3% 하락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21년은 고용회복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로 보아 대규모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인천형 뉴딜을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분야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분야로 구성됐다.

- ① 공공 주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
- ② 소생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역특화(항공,뿌리,관광) 일자리 발굴
- ③ 인천형 뉴딜사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
- ④ 고용서비스 혁신과 노동친화적 환경 조성이다.

첫째, 공공주도 일자리사업으로 총 906억 원을 투입하여 9,4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코로나 19 백신접종·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희망 근로 1,694명, 지역방역일자리 504명)를 제공한다.

더불어 장애인 일자리(1,791명)와 자활근로(3,800명)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및 판로 확대를 통해 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둘째, 생애주기별·지역특화형 일자리로 총 1조 8,973억 원을 투입하여 105,279명의 지역상황 및 수요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서비스업 침체로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62명, 스마트혁신 기업 청년일자리 100명, 디지털 무역 전문 인력 양성 40명

더불어,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구인난에 처한 중소기업간 매칭을 지원하는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50명)을 신설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강화하여 총 48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여객 감소에 따라 고용위기가 심각한 항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에어(Air)잡(Job) 센터를 운영하여 공항지역 퇴직자 대상 이·전직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항공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초급 인력에서 고급인력까지 사다리형 통합 교육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

셋째, 인천형 뉴딜사업에 5,646억 원을 투입하여 2,680명의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기업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지난 10월 유치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 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 AR·VR 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XR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제작 지원한다.

지난 2월 25일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인천특화산업(IT&BT&MICE)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실증지구를 운영하고 다양한 기업과 인천공항 공사, 도시공사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재개한 창업마을 드림촌 사업은 혁신적인 창업주체들이 열린 공간에서 교류·협업하며 창업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인천형 창업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마무리 짓고 ‘21. 10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넷째, 고용서비스 인프라 혁신과 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31억 원을 투입하여 9,848명의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2020년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구직과 생활 안정을 지원(300명)하고,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을 통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더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박남춘 시장은 “시는 전례 없는 국가적인 위기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와 고용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인천형 뉴딜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현재는 고용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올해 계획된 일자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는 조금 더 나아진 경제, 고용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붙임> (이미지) 2021년 인천시 일자리 대책(안) 및 관련 사진

2021년 인천시 일자리 대책

2021년 목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134,706명, 고용률(15세~64세) 68.3%, 취업자수 1,450천명

추진 분야

추진 전략

사업수/일자리수

사업비

* 민간 포함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

-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 공공주도 일자리 강화
- 민간 고용창출 마중물 조성
- 경영회복 신속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36개 / 16,899명

1조 1,923억

생애주기별·
지역특화 일자리

- 대상별 일자리 강화
*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 지역특화형 일자리 활성화
* 항공, 뿌리, 관광 산업
- 인천형 사회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지원

100개 / 105,279명

1조 8,973억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 인천형 뉴딜을 통한 혁신 일자리 발굴
-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통한 일자리 강화
- IFEZ 글로벌 신산업 일자리 확대

44개 / 2,680명

5,646억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

- 일자리 New 거버넌스 재정립
- 고용서비스 인프라 혁신
- 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24개 / 9,848명

131억